

21. 옴의 고백

신앙고백

찬 송 :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옴기 42장 1-9절

말씀묵상

옴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옴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옴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옴이 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옴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옴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 옴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2-3).

옴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옴은 책망을 경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옴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우리도 옴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2. 옴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4-6).

옴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옴은 자기의 형편을 알려주시는 주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옴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며,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옴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옴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7-9).

옴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제외한 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옴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옴을 ‘내 중’ 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옴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옴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옴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맺는말

옴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적용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새로 등록한 가족

등록번호	이름	직분	목장	인도자
22-06	이성학	성도	3	이강우 장로님
22-07	김남영	성도	3	
22-08	김종식	성도	3	
22-09	김학태	성도	3	
22-10	장인록	성도	3	

1. 부활절 여섯째주일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소식을 널리 알리며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임시 제직회 안내

오늘 2부예배 후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 - 부교역자 청빙의 건

3. 실시간 영상예배 중단 안내

6월부터 주일2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중단합니다. 대면예배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6. 임창세목사님의 용산제일교회 담임목사취임식 안내

일시 : 오늘(22일) 오후 3시(교회출발: 오후 2시)

장소 : 용산제일교회 본당(용산구 새창로 12길 11-18)

♣ 상회소식

[성남시찰수련회] - 23일(월)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둘레길
오전 8:30 둔전교회에서 출발

♣ 교우소식

[별세] - 故 노흥석성도님(추사순성도님 부군) : 8일(주일)

[헌물] - 서인순집사님께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영

김성혜 이하림

제118권 제21호

부활절 여섯째주일
도시농어촌선교주일

2022. 5. 22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